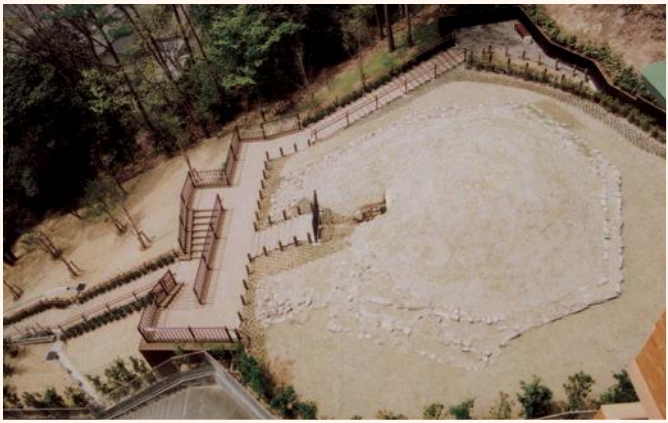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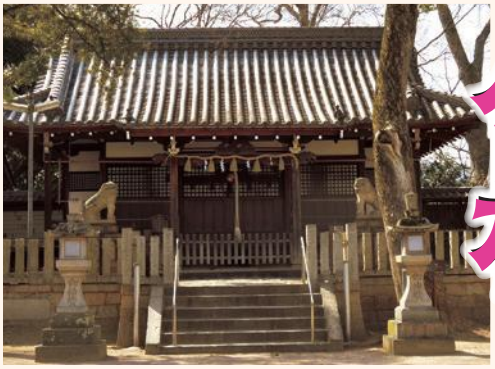


다카라즈카 문화재 산책 지도



모델 코스
전체 지도

사카세가와·오바야시·니가와 지역

니시노미야 길 주변에는 역사 깊은 절과 신사 불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롯코산 기슭의 고지대까지 올라가면, 야요이시대(B.C.300-A.D.300년)의 고지대 취락, 고분시대(300-600년)의 밀집 고분군이 남아 있으며, 아름다운 전망도 즐길 수 있습니다.

① 헤이린지 절 (본존•석조물:시 유형 문화재)

시

쇼토쿠 태자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내에 놓여 있는 석조 노반은 불당의 사각지붕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마쿠라시대(1185-1333년)의 유물.
본존은 목조 석가여래 좌상.

② 이와시즈 신사 (본전:시 유형 문화재)

시

헤이안시대(794-1185년)에 쓰여진 법령집 '엔기시키'에 이름이 남아 있는 역사 깊은 신사. 본전은 널조각으로 이은 지붕과 2개의 기둥으로 세운 가스가즈쿠리 건축 양식.
과거에는 무코가와 강변 근처에 위치해 있었지만, 큰 홍수로 인한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의 장소로 옮겨졌다.

③ 구마노 신사

가시오무라에 전해지는 마을 이름이 유래한 사슴에 관한 이야기와 유서 깊은 지역. 과거에는 1월 3일에 액막이와 오곡풍요를 점치는 활쏘기 행사가 개최되었다.

④ 다카쓰카사 스사노오 신사

현

(본전:현 유형 문화재)

본전은 에도시대(1603-1868년) 전기, 좌우의 신전은 에도시대 중기에 건립. 에도시대의 뛰어난 건축 양식이 남아 있다. 지붕을 씌워 보호하고 있다.

⑤ 다카라즈카 신사

메이지시대(1868-1912년) 이전에는 산노곤겐이라 불리며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나, 1965년에 스사노오 신사와 합쳐서 이름을 바꾸었다. 1월 10일에는 '다카라노에비스' 축제로 사람들로 붐빈다.

국등

⑥ 오바야시 세이신 여자학원 본관

(국가 등록 문화재/비공개)

1927년 건축. 체코의 건축가 안토닌 레이먼드 씨가 곡선 등을 살려 설계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⑦ 고카야마 고분군

(4호분:시 사적)

⑧ 니가와아사히가오카 고분군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걸쳐 롯코산 기슭에 축조된 밀집 고분군.

시

↑고카야마 고분군 4호분은 공원 내에 보존되어 있다. 야요이시대(B.C.300-A.D.300년)에 만들어진 고지대 취락 내에 있다.

←니가와아사히가오카 고분군 1•3호분의 2기가 남아 있다.

조금 더 이동하여·····

⑨ 사카세가와 사방댐

메이지시대(1868-1912년) 후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축조된 사방댐. 수해 감소에 크게 공헌하였다.

⑩ 엔베이지 절

다카라즈카 온천의 원천과 관련 있는 버드나무를 깍아 관음상으로 안치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국등

⑪ 마쓰모토 집안의 옛 주택

(국가 등록 문화재/기간 한정 공개)

1937년에 건축된 목조 양관. 건축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는 모던한 서양식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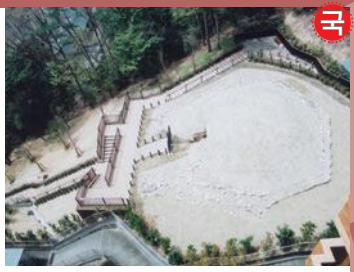
국	국가 지정 문화재	국등	국가 등록 문화재
현	현 지정 문화재	현등	현 등록 문화재
시	시 지정 문화재		

기요시코진·메후·나카야마 지역

예로부터 유명한 절과 신사가 남아 있는 지역으로, 시내외에서 많은 사람이 방문합니다. 또한 주택 개발도 추진되어, 역사가 느껴지는 경관과 현대의 거리 풍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⑫ 나카야마소엔 고분

(국가 사적)



8각형 모양의 전국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형태의 고분. 7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각형의 고분은 나라현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한 천황릉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왜 이 지역에 이러한 고분이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고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⑬ 기요시코진 세이초지 절

(본존:국가 중요 문화재·자연림:시 천연기념물 외)

우다 천황(867-931년)으로부터 '일본 제일의 기요시코진'이라는 칭호를 하사받았으며 '부엌의 신'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존은 대일여래 좌상.

⑭ 나카야마데라 절

(본존:국가 중요 문화재·본당:현 유형 문화재·호시쿠다리 축제:시 무형 민속문화재 외)

쇼토쿠 태자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순산 신앙과 사이고쿠 33곳 관음영지의 24번째 영지로 유명하며, 본존인 11면 관음보살 입상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가 있다.

⑮ 하쿠초즈카 고분

(현 사적)

나카야마데라 절의 경내 안에 있는 횡혈식 석실 고분. 7세기 초 무렵에 만들어진 호족의 무덤으로 여겨지고 있다. 석실 내에는 거대한 집모양의 가형석관이 남아 있다.

조금 더 이동하여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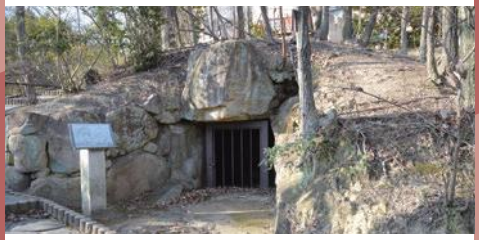
⑯ 나카야마데라 절 오쿠노인

나카야마데라 절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옛 절터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부근에 기와 조각이 흩어져 있는 장소도 있으며, 다이히 샘물과 하쿠초쿠쓰 본전 등 주아이 천황의 왕자와 관련된 전설도 전해진다. 다이히 샘물은 액막이하는 신성한 물로서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⑰ 나카스지야마테 고분군

시

(1호분:시 사적)



나가오야마 구릉에 만들어진 밀집 고분군 중에서 서쪽 끝에 위치한다. 1호분은 6세기 말경에 축조된 횡혈식 석실을 가진 지름 15m 정도의 원형 고분으로, 공원 내에 보존되어 있다.

⑱ 모토키요시 유적 (시 사적)

시

기요시코진 세이초지 절의 옛 절터로 추정되는 유적. 헤이안시대(794-1185년) 후기에 건립되었으며, 전란 등으로 화재 피해를 입어 에도시대(1603-1868년) 초기에 현재의 장소로 옮겨진 것이라고 한다.

⑲ 메후 신사

시

(신사명 표석:시 유형 문화재•신사를 둘러싼 숲: 시 천연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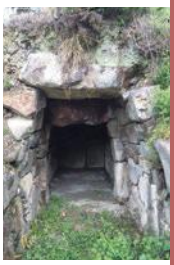
법령집 '엔기시키'에 기록된 신사로 음식과 의복의 신을 모신다. 에도시대(1603-1868년)에는 기후네 다이묘진이라 불렀다.

⑳ 나카스지야마테 히가시 고분군

시

(2호분:시 사적)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밀집 고분군. 1~3호분이 남아 있다. 2호분의 석실은 현실의 중앙에 칸막이가 있는 복실로 희귀한 형태를 하고 있다. 귀고리가 8점 출토.



㉑ 하치오지 신사

시

(돌 비석:시 유형 문화재)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손상되었지만, 2002년에 재건되었다. 경내에는 '正応三年'(쇼오 3년・1290년)의 연호가 새겨진 시내에서 가장 오래된 돌 비석이 있다.

㉒ 나카스지 하치만 신사

국

(본전:국가 중요 문화재)

무로마치시대(1336-1573년)에 건립된, 편백나무 껍질로 지붕을 얹은 본전은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에 파괴되었지만, 1996년에 남아 있던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복구되었다.

히바리가오카·야마모토 지역

다카라즈카의 교외에 위치한 한적한 주택지 가운데 하나. 특히 히바리가오카·하나야시키 지구에는 서양식으로 모던하게 꾸며진 거리 풍경이 펼쳐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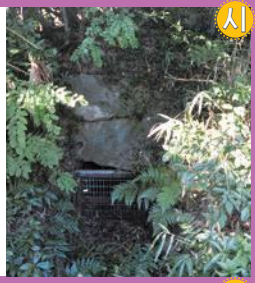
㉓ 나가오야마 고분 (시 사적)

시

2007년부터 행해진 학술조사 결과, 4세기 초에 만들어진 전장 약 42m의 전방후원분인 것이 밝혀졌다. 내부에 길이 6.7m · 폭 2.7m · 높이 1m의 거대한 점토곽(목관을 점토로 덮은 매장 시설)이 발견되었다.

㉔ 기리하타 밀집 고분군 1호분 (시 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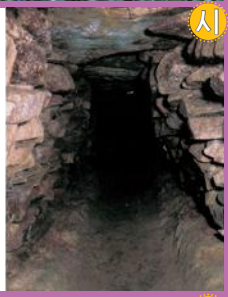
시



히바리가오카 언덕에서부터 나가야마데라 절 부근에 걸쳐 있는 나가오야마 구릉에, 6~7세기 무렵에 걸쳐 형성된 밀집 고분군의 하나로, 가장 동쪽에 위치한 표고 약 120m의 산등성이 위에 있다. 횡혈식 석실을 가진 지름 약 15m의 원형 고분으로, 이 지방의 권력자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㉕ 반라이산 고분 (시 사적/비공개)

시



나가오야마 구릉에 위치한, 오사카 평야가 내려다보이는 표고 약 200m의 산정상 능선 위에 만들어진 4세기 경의 전방후원분. 전장 약 64m, 후원부에는 길이 약 6.8m의 수혈식 석실이 있고, 석실의 바닥면에는 목관이 놓여 있었던 자국이 U자형으로 남아 있다.

㉖ 만간지 절

시

(신사를 둘러싼 숲:시 천연기념물)

모밀잣밤나무, 편백나무, 종가시나무 등으로 구성된 세토 내해 연안에 발달한 전형적인 모밀잣밤나무 숲. 절터는 다다 지방에 본거지를 둔 미나모토노 미쓰나카(912?-997년) 공이 귀의하여 번영을 누린 관계 등으로, 가와니시시의 관할 지역이 되었다.

㉗ 사이묘지타키 폭포

출가하여 사이묘지 뉴도라고 불린 가마쿠라 막부의 5대 집권 (쇼군의 섭정) 호조 도키요리(1227-1263년) 공이 이 지역에 암자를 지었다고 전해진 것이 이름의 유래.

㉘ 만넨자카 지장보살 석불

시

(시 유형 문화재)

히바리가오카에서 만간지 절로 향하는 도중에 위치한 통칭 '만넨자카'에 있는 화강암 자연석에 새겨진 지장보살 입상.

㉙ 야사카 신사

시

(본전:시 유형 문화재)

미나모토노 요리미쓰(948-1021년) 공의 중신, 후지와라노 야스마사(958-1036년)가 이 지역에 살면서 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교토 야사카의 우두천왕을 모신 것이 그 효시로 전해진다. 본전은 16세기 중엽(무로마치시대 후기)의 건물로 추정된다.

㉚ 다이호지 절

시

(석조물 외:시 유형 문화재)

조동종의 절. 창건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후도도 불당에 안치된 부동명왕 좌상은 무로마치시대(1336-1573년) 말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내에 있는 보협인탑은 월륜 내에 태장계 사불의 다라니가 새겨진 가마쿠라 시대(1185-1333년) 말경에 축조된 것.

㉛ 센류지 절

시

(본존:시 유형 문화재)

조동종의 사원. 본존인 목조 11면 관음보살상은 깜박 졸아 사이고쿠 33곳 관음영지에 포함되지 못하여 이를 크게 뉘우쳤다고 하며, 특히 깜박 졸아 실수한 것에 효험이 크다고 전해진다. '졸고 있는 관음'이라 불리며 현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㉜ 마쓰오 신사

시

(본전:시 유형 문화재)

968~970년에 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로를 제신으로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다무라마로의 아명이 '마쓰오마루'였기 때문에 마쓰오마루 신사라고도 불렸다. 현재의 본전은 에도시대(1603-1868년) 전기에 건축된 것.

㉝ 덴마 신사

시

(본전:시 유형 문화재)

순례 가도변에 위치한 스가와라 미치자네 공을 제신으로 모시는 신사. 창건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현재의 본전은 에도시대(1603-1868년) 전기에 건축된 것. 널조각으로 이은 지붕 정면에 차양을 단 구조로 기둥 밖으로 튀어나온 들보의 좌우에는 한쌍의 당사자가 새겨져 있다.

㉞ 교키 스님의 나게이시 돌

덴마 신사의 동쪽에 위치한 구로미쓰 이나리다이묘진 사당 옆에 있다. '교키 스님(668-749년)이 큰 길변에 놓여 있었던 거대한 돌이 장해가 되어 멀리 던져버린 돌'이라는 설과 '텐구 도깨비가 롯코산에서 던진 돌'이라고도 하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지만, 부근에 있었던 고분의 천장돌 가운데 하나 일지도 모른다.

㉟ 다카사키 기념관

(시 경관 중요건조물)

1923년에 윌리엄 메렐 보리스가 설계하였다. 2단으로 경사진 맨사드 지붕을 얹은 목조 2층 건물로 콜로니얼 스타일이 특색인 건물. (견학은 예약제)

㊱ 기쓰기 다유 현창비

약 400년 전, 사카우에 요리야스는 야마모토에서 접목 기술을 개발하여 식물의 품종 개량에 성공하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공적을 치하하여 '기쓰기 다유'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현재, 한큐전철 야마모토 역 서쪽에는 요리야스의 공적을 기리는 현창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하마·마이타니·아쿠라 지역

고하마 지역은 중·근세에 번영을 누린 지나이초(불교 사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치권을 가진 마을)의 모습이 남아 있으며, 옛 풍정이 물씬 풍기는 거리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아쿠라 지역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는 다카라즈카의 관문입니다.

㊲ 고쇼지 절

정토진종 혼간지파의 절로 '고하마 고보'라고도 불린다. 창건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정토진종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치권을 가진 마을(지나이초)로써 포교를 목적으로 한 방어적 성격이 강한 절로, 긴키 지방 일대에 세워진 다른 정토진종 사찰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㊳ 와다 집안의 옛 주택 (시 유형 문화재)

시

시내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민가 중 하나. 에도시대 중엽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쓰노야'와 객실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옛 소유자인 와다 집안은 대대로 이노번 마이타니 마을의 촌장으로 일하였고, 많은 고문서가 남아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가 전시되고 있다.

(입장 무료, 월요일・연말연시 휴무)

㊴ 목 지장보

목에서 위쪽 부위에 발생한 병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홍수로 무코가와 강 상류에서 떠내려 왔다' 거나 '이타미의 영주가 안치한 것' 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㊵ 고하마주쿠 자료관

고하마 지역은 15세기 말에 고쇼지 절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치권을 가진 마을(지나이초)로 발전하였고, 에도시대(1603-1868년)에는 오사카, 교토, 아리마, 니시노미야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까닭에 역참마을로 번영을 누렸다. 양조와 목수의 고장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자료관에는 고하마 거리 모형과 목공 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병설된 기획 전시실에는 다카라즈카와 관련된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다. (입장 무료, 월요일・연말연시 휴무)

㊶ 아쿠라 다카쓰카 고분 (시 사적)

시

4세기 말경에 만들어진 원형 고분. 냇돌로 쌓은 수혈식 석실에서 적오 7년(244년, 중국 오나라)의 연호가 새겨진 구리거울 등이 출토.

㊷ 아쿠라 스미요시 신사

825년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며, 에도시대(1603-1868년)에는 혼다와케 아쿠라 스미요시 신사라고도 불렀다. 혼다와케는 오진 천황을 가리키며, 사냥 시에 말의 안장을 내려 놓은 곳이라 전해진다.

㊸ 간분 8년(寛文八年)의 이정표

시

(시 유형 문화재)

아리마 가도의 이타미와 아마가사키의 분기점에 세워져 있다. 통칭 '반가차야'. '寛文八年'(간분 8년・1668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표지물은 효고현 내의 이정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

㊹ 고하마 고타이 신사

현등

시

(본전:현 등록 문화재•푯말:시 유형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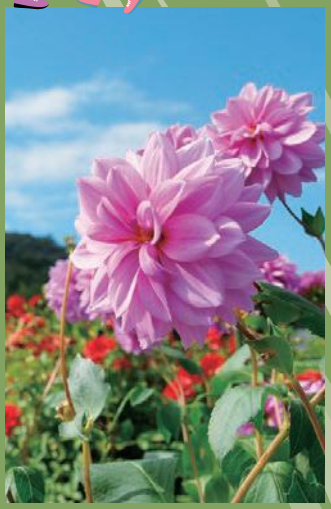
아마테라스스메오카미와 아메노코야네노미코토를 제신으로 모시는 신사. 경내에는 고하마 에비스도 모셔져 있다.

㊺ 이소시노 와타시

니시노미야 가도의 무코가와 강을 건너는 곳에는 에도시대(1603-1868년)부터 다이쇼시대(1912-1926년)까지 다리가 없었고 '이소시노 와타시'라 불리는 나룻배가 있었다.

오하라노·하즈 지역

다카라즈카의 북부에 위치하며, 전원풍경이 남아 있는 자연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오래된 석조 건축물과 문화재도 많아 산책이나 자연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달리아 하나쓰미엔의 달리아 (가미사소리)

㊻ 하즈 하치만 신사 (본전:국가 유형 문화재, 석조 신사문:현 유형 문화재)

국 현

혼다와케노미코토(오진 천황)를 제신으로 모시며 미나모토노 미쓰나카(912?-997년) 공의 남동생 미쓰마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의 본전은 1403년에 지어진 것으로, 수원지에 인접해 세워진 석조 신사문은 1425년에 축조된 것이다.

㊼ 하즈 석조 미술군 (일부:현·시 유형 문화재)

현 시

하즈 하치만 신사 경내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다. 경내의 동쪽 경사면에 있었던 곤푸쿠지 절에 세워져 있었지만 수원지를 조성할 당시, 수몰을 피하기 위해 이곳으로 옮겨졌다.

㊽ 후묘지 절 (석조물:현 유형 문화재, 그림 외:시 유형 문화재)

현 시

미나모토노 미쓰나카(912?-997년) 공과 관련이 있는 류바신에게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보현인탑 등의 석조물과 사천왕을 그린 감실문 그림(목제)이 남아있다.

㊾ 오하라노 스사노오노미코토 신사 (신사를 둘러싼 숲: 시 천연기념물)

시

숲으로 둘러싸인 신사. 편백나무, 전나무 군락 등 3개의 군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령 400년 이상의 거대한 두 그루의 삼나무는 둘레가 7m에 이른다.

㊿ 호산지 절 시

(게토론 축제:시 무형 민속문화재)

11면 관음보살을 본존으로 모시며, 중세 이래 이어져 온 전염병을 쫓는 민속행사 '게토론'이 8월 14일 밤에 개최된다.

51 나가타니 스사노오 신사 현

(본전:현 유형 문화재)

본전 앞에 있는 나가토코(무대)의 바닥 밑을 지나 참배하는 특이한 형식의 참배길이 있다. 본전은 정면에 4개의 기둥이 있는 맞배지붕 구조를 한 에도시대(1603-1868년) 초기의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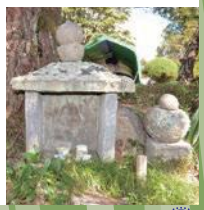
52 하즈 지장보살 석조감실 시

(시 유형 문화재)

하쓰카가와 강의 다리 옆에 있다. '応永二十四年'(오에이 24년~1417년)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으며 무로마치시대(1336-1573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53 아미타여래 석조감실 시

(시 유형 문화재)



가마쿠라 시대(1185-1333년) 후기의 석조감실. 아미타여래와 합장하는 남녀의 좌상이 새겨져 있다.

54 다이니치도 불당 (본존: 시 유형 문화재) 시

본존인 대일여래 좌상은 조립식 구조. 전체에 옻칠을 하고 금박이 입혀져 있습니다.

55 마루야마 습원 현

(현 천연기념물)

크고 작은 5개의 습원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식물 종의 수는 45개 종으로 현내에서 가장 많으며, 습원 면적도 최대 규모이다.

다카라즈카 자연의 집 부지 내

56 마쓰오 습원 시

(시 천연기념물)

충적토의 불투수층 위에 발달한 골짜기 습원으로 물이끼, 골등골나물, 숫잔대, 닭의난초 등이 자생하고 있다.

57 히가시 집안의 옛 주택 현

(현 유형 민속문화재)

에도시대(1603-1868년) 중기에 세워진 니시타니 지역의 전형적인 농가. 이축되어 역사민속 자료관으로 공개되고 있다. 다카라즈카 자연의 집 개장일에만 견학 가능.

58 '다케다오 온천'

다카라즈카시에는 다케다오라고 불리는 산들로 둘러싸인 지역이 있어, 에도시대(1603-1868년)에 도요토미측의 패잔병이었던 다케다오 나오조가 발견했다고 전해내려오는 다케다오 온천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코가와강의 계곡미와 계절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하이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니

다카라즈카 가이드

다카라즈카시 지명의 유래

'다카라즈카' 라는 지명은 고분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카라즈카에는 그 근처에서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온다고 여겨진 고분이 있었는데, 그 고분을 다카라즈카(보물이 매장된 무덤)라고 불렀고, 이것이 지명의 유래로 추정됩니다.

다카라즈카와 불교 문화

다카라즈카는 불교 문화가 일찍부터 유입된 곳으로, 불교를 일본에 보급한 인물로 알려진 쇼토쿠 태자가 창건한 것으로 여겨지는 나카야마데라 절을 비롯해, 기요시코진 세이초지 절 등 역사깊은 사찰이 있습니다.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석조 미술품이 다카라즈카시 내에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다카라즈카시 북부에 위치한 니시타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카라즈카 가극과 온천

현 한큐전철의 창업자인 고바야시 이치조에 의해 1911년에 다카라즈카 신온천이 문을 열었고, 1914년에 신온천에서 즐길 수 있는 오락으로 소녀가극(현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공연은 대단한 인기를 모았고, 다카라즈카는 '가극과 온천의 고장' 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다카라즈카 가극은 2014년에 100주년을 맞이하였고, 다카라즈카 역 근처에 위치한 다카라즈카 대극장과 그 주변은 화려하고 활력 넘치는 장소로 변모하였습니다.

가슴 뛰는 하루 하루가 보물 다카라즈카

발행 다카라즈카시 교육위원회 사회교육과

우편번호 665-8665 다카라즈카시 도요초1-1 전화 0797-77-2029

2019년 3월 발행